

## 내러티브 저널

2026년 4월 13일

오늘은 아침 조회를 직접 진행하는 실습을 하였다. 학생들 앞에 서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긴장되었지만, 담임교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. 오늘은 수행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는 안내를 하였고, 아직 상담 시간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담 일정을 잡아 달라고 공지하였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며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.

이후에는 체육 수업을 참관하였다. 학생들은 오래달리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, 수업 전 함께 몸을 풀고 학생들을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다. 평소 교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,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.

특히 체육 활동은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수업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다 보니 학생들도 먼저 말을 걸어 주었고,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. 교실 안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.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금 더 가까운 교사가 되고 싶다.